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 부활 제목: 부활하신 예수님 성경: 누가복음  
24장44-49절

44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5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46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삼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47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48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49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눅 24:44-49)

오늘은 부활절. 부활의 기쁨이 더욱 충만하시길.

부활을 믿으면 크게 긍정적으로 변하게 된다.

부활을 믿으면 전혀 새로운 삶이 열린다.

더 이상 아까운 인생이 아니다. 살려고 발버둥치는 삶에서 해방된다. 부활을 믿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되고 잘못된 삶을 두려워하게 된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삶;결과적으로 짧은 인생 즐기고 누리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됨. 죽음에 가까이 갈수록 더 큰 죄인이 되어간다.

삶을 두려워하는 삶;(지금의 삶이 영생을 준비하는 씨앗이기에 이 씨앗이 영원한 세계에서 다시 소생하는데 집중하게 됨. 그래서 부끄러운 삶을 두려워하게 됨.) 죽음에 가까이 갈수록 더 정결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간다.

그리고 세상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에 의해서 더러워지고 멸망의

길로 빠져가고, 반면 삶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정화되어가고 개선되어간다.

이 세계는 부활을 믿는 자들의 손에 달려있다. 인생이란 타락하고 놀고, 허비하라고 주어진게 아님을 믿어야 한다. 그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있는 삶에 빠져보자! 그것이 부활을 경험하는 삶이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다.

## 1.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심

44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5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 특히 구약성경에서 예수님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자세히 가르치심.
- 기독교는 제자들이 스스로 깨달은 것을 전하는 종교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을 오늘날 교회가 전수받고 전수하는 것이다.
- 그래서 핵심적인 가르침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다만 시대에 걸맞도록 다시금 예수님의 정신을 재적용하는 것만 조금씩 달라질 뿐이다. (예;물 한그릇의 선행-오늘 우리나라에서의 물 한그릇의 선행은 그리 크지 않다. 예를 들면 오늘날의 sns 선거운동, 노인층들은 불가능한 선거운동. 그래서 민감하다.)
- 기독교외에 다른 어떤 종교도 기적을 핵심 교리로 여기지 않는다.
- 타 종교는 기적을 믿음의 대상으로가 아니라, 선전의 도구로 활용한다. 소문을 타고 긍정적 마인드를 주입하려할 때 활용한다.
- 그러나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기적은 믿음과 직결되는 신념을 포함하고 있어서 기적을 믿을 것을 요구한다. 기독교에서의 기적은 소문이 아니다.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을 요구한다.

-처음에는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진지한 해석을 듣다 보면 마음이 열리고 성경을 깨닫게 되고, 기적을 믿게 된다.

-진리되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제각각이지 않음. 진리의 영 성령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우치게 하심.

-가장 핵심이 되는 진리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다. 십자가는 죄사함을 위함이고, 부활은 우리의 의를 위함이다. 예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고, 이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오늘날처럼 비방 흑색 선전을 통한 민주주의의 완성에 있지 않다. 그런 현상들은 그저 죄가 만연된 현상일 뿐이다.

## 2. 성령을 받으라 하심

49 불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 후 제자들과 만났을 때 성령을 받으라고 하심.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요 20:22)

-성령께서 오셔서 깨닫는 마음을 주셔야 한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야 새로운 생명이 탄생 하듯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만나야 온전한 진리를 깨우친다.

-학생들이 '요한복음으로 영어 끝내기'를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

-나는 단순히 영어공부를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

-내 스스로가 요한복음으로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제자 요한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국말로 잘 와 닿지 않는 표현들이 영어를 통해서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게 와 닿는 것들이 많다.

-언어의 능력은 참으로 놀랍다.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킨다.

-설교를 통해서 성령을 받는다.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령을 받는다. 다른 방법으로 성령을 받더라도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성령을 받는다.

-성령을 받으면 받지 않았던 때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 마음을 열고 성령을 받으라. 아멘.

### 3.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 되어라

#### 48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성령을 받으면 비로소 전도할 수 있게 된다. 내 안에 충만한 것이 밖으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도는 새 생명의 탄생이다. 새 생명의 탄생은 사람을 기쁘게 한다. 그리고 부모의 삶을 변화 시킨다. 더 이상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삶으로 변화된다.

-교회는 이런 새생명 운동이 핵심이다. 이 운동이 없는 예배나 기도는 생명력이 소멸되어 율법적인 행위로 전락하게 된다.

-우리는 전도하면서 생명력이 왕성해지자! 아멘.

<찬양예배>

주제:기적      제목: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해      말씀:요한복음  
20장24-29절

24 열두 제자 중의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25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  
되 내가 그의 손의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26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  
을지어다 하시고

27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  
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  
가 되라

28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29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요20:24-29)

-우주의 존재 자체가 바로 기적. 현대 물리학자들은 놀라고 있다.  
물리학은 신비의 문을 두드리고 있고, 신학은 과학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우주와 세계를 지탱하는 힘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  
힘의 원리나 법칙을 연구하고 싶어하는 자들이 과학자들.

-그러나 사람에게서는 이런 힘을 초월하는 기적이 필요하다. 자연법  
칙에 순응하지 말라거나, 무시하거나, 역행하라는 뜻이 아니다.

-자연법칙을 누리며 살되 순간 순간 초월해서 살아야 한다.

-그래야 삶에 생동감이 넘친다.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생동감에 목말라서 욕을 하거나, 원망  
하거나, 미워하거나, 반역하는 등 마귀적인 방법으로 생동감을 채우  
려고 한다. (우주에 반물질이 있듯이 악한 힘을 끌어내어 사용하려는

자들도 많고 그들로 인해서 세상은 파괴당한다.)

-그러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삶의 거룩함 앞에 숙연해진다.

(최민수가 김구라에게 한 말; 너의 말에는 거룩함이 없다. 말이 거룩한데, 너는 그 말의 거룩함을 더럽힌다는 뜻.)

-기적을 체험하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더럽혀지는 사람도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이다.

-기적 앞에 겸손한 사람이 있고, 기적으로 교만해지려는 사람이 있다. 그 열매는 너무 다르다.

-하나님은 친절하시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그에게 기적을 요구하자. 그러나 하나님은 요술램프의 지니가 아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주권자시다. 먼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을 연구하고 믿자. 그러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에 대한 느낌을 배우게 되고, 자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를 배우게 된다. 기적을 갈망하고 기적을 체험하자! 아멘.